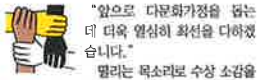


폐교서 시작한 한국생활 고됐지만... 이젠 당당한 다문화 지원군

다문화가족 부문

대상 받은 중국 출신 썬커후이씨
다문화가족 상담봉사... 대학도 진학
베트남 노래번씨-우즈베크 지요다씨
이주민 정착 지원 공모 우수상 수상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돕는데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던 썬커후이 씨(40·여)가 심호흡을 한 뒤 우렁차게 소감을 마무리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LG와 함께 하는 동아 다문화상(賞)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썬커후이 씨의 소감을 짧고 강렬했다.

올해 7회를 맞은 LG-동아 다문화상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다문화가족, 그들을 도운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 다문화가족상 수상상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쿠지바예바 지요다 씨(27·여)는 “한국에서 일구어온 삶은 개 삶이 없는데 이번 상이 큰 위로가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행사엔 남민군·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장과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자스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총장, 양민정 한국외국어대 다문화교육원장,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남 위원장은 “이젠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공존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수상한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축하했다. 정 장관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을 다문화가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중국 출신 썬커후이 씨는 2006년 남편 한중복 씨(45)를 만나 결혼했다. 경기 양평군의 한 폐교에 마련한 신혼집은 겨울이면 코가 얼 정도로 추웠다. 그래도 썬커후이 씨는 한국에 온 뒤 한 번도 “남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주변의 한결같은 응원 덕에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봉사를 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중어중문 학과에 다니고 있다. 최근 한 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썬커후이 씨는 웃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가족상 우수상을 수상한 노래번 씨(34·여)는 베트남 호찌민대를 졸업했다. 2006년 4월 성희준 씨(43)와 결혼해 전주 군(여), 유진 양(6) 남매를 키우면서 한국에 실력을 길러왔다. 2014년 전주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고 올해부터 전주대 국제교류원에서 개인교사로 활동하며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7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진호연 군, 김영조, 썬커후이, 노래번, 후지사와 미유미, 원희 씨, 다문화 국민 셀러드의 박경주 대표, 쿠지바예바 지요다 씨, GS스포츠 FC서울의 FOS 한병서 팀장. 전영한 기자 scoophy@donga.com

동아 다문화상 수상자

- ▽가족상
 - 대상: 썬커후이 씨 가족(경기 양평군 중국 출신)
 - 우수상: 노래번 씨 가족(전북 전주시 베트남 출신)
 - 쿠지바예바 지요다 씨 가족 (서울 성북구-우즈베키스탄 출신)
 - 후지사와 미유미 씨 가족 (전남 고흥군-일본 출신)
- ▽특별상: 진호연 군 가족(전남 진안시-중국 출신)
- ▽공헌상 개인
 - 원희 씨(미주주 여성 상담사·베트남 출신)
 - 김영조 씨(다문화가족 병영교육지도사)
- ▽공헌상 단체
 - 사회적 기업 셀러드(다문화 국민)
 - GS스포츠 FC서울(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지요다 씨는 남편 유제 씨(31)와 원지의 한국이 화원에서 만났다. 2013년 결혼한 한국에 온 뒤 북기를 살려 다룬 다문화가족을 위한 봉사에 뛰어들었다. 아들 기산 군(3)에 이어 한 달 전 둘째 주선 양을 품에 안은 부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일본 출신 후지사와 미유미 씨(52·여, 우수상)는 남편 유대식 씨(59)가 2008년 자제장을 얻은 뒤 생계를 도왔다. 면사무소에서 민원봉사실 복지도우미로 일하며 받은 자활근로 수당으로 아들 승근 씨(20)와 딸 연미 양(18)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 특별상을 받은 중국 출신 진호연 군(18)은 아버지 이선남 씨(53) 같은 용접 기술자가 되기 위해 한국폴리텍 대고등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다문화가족상 대상과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상 수상자에게 모금 부문 비용도 지원된다. 공헌상 단체 부문 상금은 1000만 원, 개인상은 500만 원이다.

조권희 becom@donga.com 김우경 기자

국내 첫 이주민 극단... 8년간 300차례 '희망 공연'

다문화공연 부문

단체부문 수상 사회적기업 '셀러드'
"문화의 다양성 선도하도록 노력"

개인부문 베트남 출신 원희영씨
이주여성 돕기 앞장... "행복 되찾아"

다문화공연상 단체 부문을 수상한 사회적 기업 '셀러드'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 이주민들로 구성된 극단이다. 단원 10여 명은 과거 모국에서 공연을 배운 이주 여성과 유학생들이다. 200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연 횟수는 300회에 달한다. 이주민 차별 등 현실을 고발한 연극부터 다문화와 소개하는 어린이용 뮤지컬까지

모두 단원이 직접 대본을 쓴 순수 창작물이다. 박경주 셀러드 대표는 "이주민 200만 명 시대를 맞아 문화의 다양성을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축구팀 'FC서울'을 운영한 GS스포츠도 다문화공연상 단체 부문을 수상했다. GS스포츠는 축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하장수 GS그룹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13년부터 '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만여 명의 다문화가족 어린이가 축구교실에 참가했다. GS스포츠 관계자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또래 한국 어린이와 한 팀에서 축구할 배우도록 했다"며 "상금 전액은 다문화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공연상 개인 부문 수상자인 베트남 출신 원희영 씨(32)는 2004년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온 한국어를 몰라 집에서 지내다 마

음의 명까지 생겼다. 하지만 남편과 자신들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운 뒤에는 경기 수원교정센터 원스텝 베트남어 통역원, 이주여성근로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이주민을 돕는 데 앞장섰다.

원 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다문화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았다. 원 씨는 "한국 생활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주 여성들을 격려했다.

또 다른 다문화공연상 개인 부문 수상자인 김영조 씨(51·여)는 경기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로서 7년째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 씨는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준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최고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영조 기자 kimh@donga.com

"다문화자녀는 고급인재" ... 교육 지원 늘린다

여가부, 이주언어 인재 DB 확대
교육부, 영재교육 참여 대학 늘려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파·마·묘브 다니엘 씨(22)는 아랍 적 속 탐방에 사는 형편이라 학원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성적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 참여한 뒤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평소 접하지 못한 대학 교수진의 수업과 대학생 멘토의 조언은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현재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학생이자 태평대 입대를 앞둔 학군사관후보생(ROTC)인 다니엘 씨는 "러시아에 진출할

연계기회사의 밑거름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LG는 2011년부터 부모 나라의 현직어와 한국 어 등 이주 언어에 초점을 보이고 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드러낸 다문화 청소년에게 2년 동안 한국 외국어대, KAIST 교수진의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과학 엑스포 수상자 명단도 입학생 등 수료생 250명을 배출했고 온라인과점 수강생은 800명이 넘었다.

이 같은 다문화 영재 양성 사업은 지금까지 기업이 주로 담당해 왔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관련 정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

한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문화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2012년 53.3%에서 2015년 68.1%로 상승하는 등 한학원이 대대하고 베트남 등 신시장공급국의 교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이주 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축자를 연평균 30%에서 100%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도 다문화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브릿지' 사업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은 2개월 뒤 국무총리 신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거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5차년(2018~2022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권희 기자 becom@donga.com

주최: 동아일보사 LG 후원: 여가부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은 커진다

38년의 믿음, 맞다! 게보린

빠르고 깔끔하게!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약(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의약품 오남용 퇴치, 게보린이 함께 합니다.